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성찰적, 경험적, 사색적, 문답적
- 제재 : 시인의 가치와 올바른 사회적 역할
- 주제 : 시의 의미와 시인의 자격에 대한 성찰

#EBS

해제

이 작품은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는 시인의 바람과 사회적 책무를 평범하고 단순한 진솔로 형상화한 시이다. ‘시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은 화자는 하루 종일 답을 찾으며 배회하다가, 고생스럽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 화자는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어 슬기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다움의 기초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자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있음을 드러낸다.

주제

시인의 가치와 진정한 모습 / 서민들의 성실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긍정

구성

- ▶ 1~2행: ‘시가 뭐냐’는 물음에 대한 ‘잘 모른다’는 ‘나’의 대답
- ▶ 3~6행: 여러 곳을 돌아다닌 후 남대문 시장에 이르러서 답을 구함.
- ▶ 7~15행: ‘나’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 시의 본질에 대한 질문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화자 자신에 대한 평가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 서울역 앞을 걸었다.

↳ 질문의 답을 생각하며 배회한 곳으로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러전임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 시간의 경과를 보여줌

↳ 진행형으로 서술함으로써 답을 깨닫게 된 순간의 특별함을 부각함

그런 사람들이 /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그리스 문자의 첫째 자모(첫번째 또는 처음의 뜻으로 쓰임.)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

↳ 밝고 환함. 또는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작품의 특징

-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시인이 지향해야 함을 드러냄
- 시에 대한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
-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 나타남



김수영, 「폭포」

- 갈래 : 자유시, 주지시
- 성격 : 관념적, 상징적, 현실 참여적
- 제재 : 폭포
- 주제 :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EBS

해제

이 작품은 폭포의 속성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상화한 시이다. ‘떨어진다’는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일체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정신적 지향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는 안이한 삶의 태도를 거부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구성

- ▶ 1연: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
- ▶ 2연: 고매한 정신을 지닌 폭포의 속성
- ▶ 3연: 끈은 소리를 내는 폭포의 모습
- ▶ 4연: 끈은 소리를 이끌어 내는 폭포의 선구자적 속성
- ▶ 5연: 나태와 안정을 거부하는 폭포의 모습



김수영, 「폭포」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 '고매한 정신', '곧은 소리'를 상징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 폭포의 물결 - 자유의 이미지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 현실적·세속적 가치나 목적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 일관되고 지속적인 폭포의 속성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 높고 훌륭한 폭포의 속성

금강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 아름다움, 희망 ↳ 인간적 유대 ↳ 부정적 현실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 정의롭고 진실된 양심의 소리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 소리를 부른다

↳ 곧은 소리로써 다른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폭포의 선구자적 정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 부정적 현실에 만족하는 소시민적이고 안이한 삶의 태도

높이도 폭도 없이 / 떨어진다

↳ 폭포의 절대적 자유로움



작품의 특징

- '떨어진다' 시어 반복 : 운율 형성, 의미 강조
-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강조
-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하게 의미 제시
- 구체적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의 추상적 내면세계 형상화



이형기, 「폭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관념시
- 성격 : 관념적, 서정적
- 제재 : 폭포가 있는 산
- 주제 : 폭포에 내재된 삶의 치열성, 전율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

#EBS

해제

이 작품은 폭포에서 떠오르는 관념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벼랑에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에서 시퍼런 칼자국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단말마'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폭포의 모습에서 석단기에 추락하던 장수잠 자리를 떠올리며, 폭포의 물방울을 박살 나는 장수잠자리의 '복안'에 비유함으로써 화자가 인식하는 비극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삶의 고통과 비극성에 대한 인식

구성

- ▶ 1연: 시퍼런 칼자국 같은 폭포의 형상
- ▶ 2연: 벼랑 위에 다시 솟는 벼랑
- ▶ 3연: 장수잠자리의 추락과 같은 폭포
- ▶ 4연: 박살 나는 폭포의 물보라
- ▶ 5연: 시퍼런 빛줄기, 칼자국 같은 폭포의 형상



이형기, 「폭포」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을

↳ 청자를 상징하여 대화체로 표현(말을 건네는 방식 사용)

어깨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형성함(존재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함)

질주하는 전율과 /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 /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 바람에 형성된 폭포의 모습

그대 아는가 /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날으던 /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墜落)을

↳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형성함(존재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함)

나의 자랑은 자멸(自滅)이다 /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 역설적 인식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 박살 나는 맹목(盲目)의 물보라

↳ 떨어져 흩어지는 폭포의 물방울을 장수잠자리의 눈이 박살나는 형상을 그려냄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 2억년 묵은 오래된 칼자국과 같은 고통

* 단말마: '임종(臨終)'을 달리 이르는 말.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



작품의 특징

- 동일한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을 형성함
-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형식적 통일감을 주면서도 3연에서 도치를 통해 변화를 줌으로써 단조로움을 벗어남
- 1연의 내용을 5연에서 변형하여 배치함으로써 형태적 안정감을 주며, 리듬감을 형성함.



신경림, 「농무」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사실적, 비판적, 묘사적
- 제재 : 농무
- 주제 :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농민들의 한과 울분

#EBS

해제

이 작품은 농무를 소재로 한 농촌 시로, 농민들의 한과 비장미를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 체념, 비장미가 담긴 서정시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일궈 낸, 가장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시이다. 이 작품은 암담한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한 자의 울분을 노래하면서도 그 울분이 선동적이거나 전투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날라리를 불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드는 신명으로 울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농무를 통해 그들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1960~70년대에 산업 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농민의 소외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는 한편, 농민의 비애와 분노를 담아 내고 있다.

주제

농민들의 고뇌와 비애 / 소외되고 억압된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

구성

- ▶ 1~6행: 농무가 끝난 뒤의 답답한 심정
- ▶ 7~10행: 장거리에서 느끼는 소외감
- ▶ 11~14행: 현실에 대한 울분과 좌절감
- ▶ 15~20행: 농무를 통해 달래는 분노와 한



신경림, 「농무」

정이 올린다 **막이 내렸다**

↳ '농무'가 끝난 시점 - 농민들의 비탄과 허탈감(하강적 이미지)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 임의로 설치한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 무너져 가는 농촌 현실 - 소외감, 공허감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 중의법 - 1. 분노, 2. 분장 화자의 우울한 심리 반영

학교 앞 **소숫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공간의 이동 ↳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는 행동(농민들의 현실 인식이 직설적인 감정 표현으로 드러남)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 인물들의 심리를 직접 제시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 공간의 이동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의 현실 상징

치너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 황기했던 과거와 달라진 농촌의 현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조선 명종 때 의적 - 사회 모순에 저항한 민중적 영웅 ↳ 모순된 현실에 대한 울분의 격정적 토로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 임적의 참모였으나 배신함 -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인물 ↳ 황폐해져 가는 농촌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

비릇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 퇴폐한 농촌의 현실 - 농민들의 울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작품의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역전적 구성으로 농민들의 절망감을 극대화하여 나타냄.
-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 반어적이며 역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농민들의 심리를 부각시킴.



서정주, 「신선 재곤이」

- 갈래 : 산문시, 서정시
- 성격 : 낭만적, 토속적, 신화적
- 제재 : 공동체 구성원의 따뜻한 마음
- 주제 : 장애인을 보살피는 질마재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

#EBS

해제

이 작품은 ‘앓은뱅이’인 재곤이를 돌보아 주는 질마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그린 시이다. 장애를 가진 재곤이를 위해 늘 끼니와 추위를 견딜 옷, 불을 뒤편어 주던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재곤이가 없어지자 천벌을 받을까 걱정한다. 질마재 마을의 인정이 바닥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선도에도 알음이 있다는 조 선달 영감이 재곤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신선살이를 하러 하늘에 갔다며 마을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을 이끈다. 이러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의 죽음을 신선살이를 간 것으로 긍정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삶의 귀결을 바라는 선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장애인을 보살피는 질마재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

구성

- ▶ 1행: 마을 사람들이 앓은뱅이 재곤이를 돌봄.
- ▶ 2행: 마을 사람들이 앓은뱅이 재곤이를 돌보는 이유
- ▶ 3행: 재곤이가 사라짐.
- ▶ 4행: 재곤이가 사라진 이유에 대한 조 선달 영감의 해석
- ▶ 5행: 마을 사람들이 조 선달 영감의 해석에 동조함.



서정주, 「신선 재곤이」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在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앓은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성한 두 손으로 명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만, 그것만으론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앓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 '땅에 있다'라는 뜻
↳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리의 속칭, 시인의 출생지
↳ 마을 사람들의 배려

'재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별을 먼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리하여서, 그의 세 끼니의 밥과 치위*를 건넬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 오고 있었습니다.

↳ 장애인을 돕는 것이 의무라고 여김, 전통적 가치관(공동체 의식)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던가 을해년의 새 무궁화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재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 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 무겁디 무거운 모습만이 산 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

↳ 재곤이가 없어짐
↳ 재곤이의 모습, 마을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

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재곤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 전통적 가치관(인과응보적 사고)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탄 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 신선도(神仙道)에도 약간 알음이 있다는 좋은 흰 수염의 조선달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안 생겼는가.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천 년은 된다고 하네. 그러니, 그긴 목숨을 여기서 다 건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거여……"

↳ 장수를 의미하는 동물
↳ 재곤이가 좋은 데 갔으리라 기대함. 신화적 상상력

그때 "재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 뱃돌을 단단히 매어 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던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한테 보인 일이 없으니 조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가불 옳기나 옳다"고 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에 두 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 일반 멧돼지보다 수심 배나 크고, 사람 대신 소나 말이 돌리게 되어 있어 능률이 그 만큼 높음
↳ 마음속으로는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재곤이가 신선이 되었으리라는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기원,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드러남.



작품의 특징

-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
- 화자는 질마재 마을에 전해오는 재곤 이야기를 전달하는 관찰자 입장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설화를 이야기하는 듯한 서사적 구성을 취함.
- 한 인물의 죽음을 부활과 재생으로 바라보는 신화적 상상력이 나타남.



송수권, 「까치밥」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교훈적, 향토적
- 제재 : 까치밥
- 주제 : 까치밥의 의미를 통해 따뜻한 인정의 소중함을 되새김

#EBS

해제

이 작품은 까치 따위의 날짐승이 먹으라고 따지 않고 남겨 두는 까치밥을 통해 겨울철 먹이를 찾지 못하는 새들이나 작은 짐승들에게 까지 인정을 베푸는 고향의 훈훈한 정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은 신지 앓을 짚신을 몇 죽 남기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타적인 마음과 까치밥마저 따려 하는 서울 조카아이들의 모습을 대비하여 각박한 인생길의 등불 같은 까치밥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결국 그런 마음씨가 담긴 까치밥이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하는 후손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 깃들여 있는 인정과 배려

구성

- ▶ 1~10행: 날짐승에게까지 베푸는 인정으로서의 까치밥
- ▶ 11~17행: 할아버지께서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남기신 짚신
- ▶ 18 ~ 23행: 머나먼 길의 서러움을 달래 줄 등불 같은 까치밥



송수권, 「까치밥」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 고향의 의미도 모르는 아이들 ^{동호법} ↳ 하찮은 미물에게까지도 정을 베푸는 고향의 인정을 상징하는 소재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 명령(단호한 태도)

↳ '고향'과 상반된 공간 ↳ 고향의 따뜻한 인정을 모르는 각박한 세대를 가리킴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 인정없는 삭막한 세상을 뜻함 ↳ 까치밥이 없다면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다는 뜻(설의법)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 험난하게 살아온 인생을 '물굽이'로 빗대어 나타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 은유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 그 까치밥 따지 말라

↳ 변주 및 반복을 통해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 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 자비성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 청자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 겨울 하늘에 떠서

↳ 이라성/전통적 공동체의 자세(회복해야 할 가치)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취 주고 있지 않으나.

↳ 설의

*말쿠지: 말코지.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



작품의 특징

- 청자를 설정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함.
- 의미상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해 주제를 강조함.
- 직유법을 통해 공존의 삶이 각박한 인생길에서 가지는 의미를 형상화함.
- 시어 및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 화자의 단호한 태도를 드러냄.
-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이정록, 「의자」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교훈적, 향토적
- 제재 : 의자
- 주제 :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EBS

해제

이 작품은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화자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고달픈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나름의 안식처가 존재함을,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은 결국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처지임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인생이란 서로에게 의자와 같이 편안한 존재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주제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구성

- ▶ 1연: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가 전하는 한 소식
- ▶ 2연: 어머니가 병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이치
- ▶ 3연: 아버지에게 든든한 의자였던 화자
- ▶ 4연: 식물에게도 의자를 내주려는 어머니
- ▶ 5연: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당부



이정록, 「의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 한 소식 던지신다

↳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는 어머니의 말씀

허리가 아프니까 /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 지치고 고단한 어머니의 삶에 위안을 주는 것들

↳ 시어의 반복 -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강조됨

주말엔 /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나

↳ 어머니가 자식(큰애)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

↳ 위로와 위안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 어머니의 배려

호박에 띄리도 받쳐야겠다 /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 자연물까지도 포용하는 어머니 - 자연 친화적

싸우지 말고 살아라 /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나

그들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 삶에 대한 어머니의 지향 - 서로가 서로에게 '의자'와 같이 위안을 주는 것



작품의 특징

- '의자'라는 일상적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 화자의 어머니가 말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어머니가 직접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하며, 어머니의 마음 또한 보다 생생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음.
-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시적 상황에 생생함을 부여함.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 성격 : 비관적, 회의적, 감각적
- 제재 : 봄
- 주제 : 변화 없는 삶에서 느끼는 권태와 억눌린 욕망

#EBS

해제

이 작품은 변화 없는 삶에서 오는 권태와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욕망, 욕망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 등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작품에서 봄이 찾아온 상황이 제시되지만 화자는 '우리의 굶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비관적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또한 '세차장 고무호스'의 역동적인 모습은 자유롭고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욕망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석탄층'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욕망이 실현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는 상황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제

변화 없는 삶에서 느끼는 권태와 억눌린 욕망

구성

- ▶ 1행: 봄이 찾아온 모습
- ▶ 2행: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과 권태로운 삶
- ▶ 3행: 삶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
- ▶ 4행: 자유롭고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욕망
- ▶ 5행: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굳어 가는 현실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시어 ①

↳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시어 ②

↳ 계절적 배경 : 봄

↳ 단정적 어조, 일반화시킴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 현실에 안주하는 삶 ①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굽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착지근한 혀, 향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 물음

↳ 현실에 안주하는 삶 ②

↳ 답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때 숨아오르고 싶었다 세차장 고무호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

↳ 치열한 사랑에 대한 열망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 나는 석탄층(石炭層)이 깊었다.

↳ 단정적 어조

↳ 억눌린 욕망, 화자의 내면 상태 비유



작품의 특징

- 봄의 자연현상과 대비되는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
-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욕망을 드러냄
-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



최두석, 「성애꽃」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현실참여적, 감각적
- 제재 : 성애
- 주제 :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EBS

해제

이 작품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작품에서 ‘엄동 흑한’은 험겨운 시대 상황을 암시하며, ‘새벽 시내버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모여들었던 공간이고, ‘성애꽃’은 그들이 남긴 흔적이다. 그리고 ‘성애꽃’에 대한 화자의 묘사와 행동에서 고통스럽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드러난다. 한편 작품의 말미에는 ‘면회마져 금지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저항이 용인되지 않는 시대 상황이 암시되고 있다.

주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

구성

- ▶ 1~10행: 차창에 핀 성애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낌.
- ▶ 11~19행: 성애꽃들의 모습을 감상하면서 감동함.
- ▶ 20~22행: 뜻을 같이했던 친구의 모습을 떠올림.



최두석, 「성에꽃」

새벽 시내버스는

↳ 사람들의 삶의 공간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 성에를 차창에 핀 꽃으로 봄. 성에꽃을 비유한 표현 ①

엄동 **혹한** 일수록

↳ 힘들고 고��스러운 시대 상황

선연히 **피는 성에꽃**

↳ 버스를 탄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 사람들의 숨결에 대한 화자의 애정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차녀 **총각** 아이 어른

↳ 고된하루를 보내고 버스를 탄 사람들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성에꽃을 비유한 표현 ②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며 감동함. 역설법.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아름답다고 표현.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서민들의 고된 삶. 성에꽃을 비유한 표현 ③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 서민들의 치열한 삶. 성에꽃을 비유한 표현 ④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 삶의 고단함과 애환을 공감함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 시상이 전환됨. 성에꽃을 바라보다 친구의 모습이 떠오름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는 길에 함께했던 친구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민주화의 길을 함께했던 친구



작품의 특징

- 주로 시각적인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 암울한 사회 현실(80년대 신군부의 군사 독재)을 바탕으로 회적 불평등과 열악한 노동 현실의 심화를 드러낸다.
- 현실 대응에 있어서 감성과 지성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다.
-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



홍운숙, 「가을 집 짓기」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자유시, 서정시
- 제재 : 가을
- 주제 :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의 삶을 극복하고 누리는 평안

#EBS

해제

이 작품은 자기 성찰을 통해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평안을 경험하는 자아의 내면을 형상화한 시이다. 작품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졌던 집을 수리하는 화자의 행동은, 본연의 자아를 돌아보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마지막 행의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은 노력의 결과로 평안의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이다.

주제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의 삶을 극복하고 누리는 평안

구성

- ▶ 1~6행: 방황을 끝내고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고자 함.
- ▶ 7~13행: 버려졌던 집을 수리하고 망가진 부분들을 마주함.
- ▶ 14~18행: 집을 수리하면서 평안에 이룸.



홍윤숙, 「가을 집 짓기」

돌아가야지

↳ 「돌아가야지」를 반복하며 자아를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알 수 있음.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얹어지고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계절적인 변화

흩어졌던 영혼의 양 떼 모아

↳ 과거의 상처 1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 1년의 반복, 방황을 끝내고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

↳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간. 화자의 자아

가서 한 생애 버려뒀던 빈집을 고쳐야지 → 방황했던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려함

↳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간. 화자의 자아

수십 년 누적된 병인을 찾아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 과거의 상처 2

상한 가지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 상처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

↳ 과거의 상처 3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 평화롭고 충만한 이미지. 현재의 성숙 (1)

내 생애 망가진 부분들이

수목으로 떠오른다 →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하게 됨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쏟아진 평화**

↳ 비로소 느끼는 참된 평화로운 내면. 현재의 성숙 (2)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날을 지새고 → 방황하고 고뇌하던 지난 날의 내면

↳ 과거의 상처 4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 영혼을 치유하고 돌보는 현재의 내면

↳ 현재의 성숙 (3)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의

↳ 자아성찰, 성숙의 시간

평안으로 온다

↳ 현재의 성숙 (4)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 방황하던 지난 날을 극복하고 성숙하게 된 현재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 현재의 성숙 (5)



작품의 특징

- 「돌아가야지」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다짐 강조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표현
-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성숙에 이르는 시적 상황 표현
- 「가을, 「밤, 「집」의 공간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 됨



나희덕, 「쏟음이 보이는 방-이중섭의 방에 와서」

- 갈래 :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관조적, 애상적, 회화적, 회고적
- 제재 : 화가 이중섭의 삶과 그림
- 주제 : 이중섭의 삶과 이중섭이 꿈꾸던 세계를 떠올리며 느끼는 연민

#EBS

해제

이 작품은 시인이 이중섭 화가가 살던 곳을 방문하고 떠올린 시상을 형상화한 시이다. 시인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가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던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를 감각적인 언어로 시적 공간에 그려낸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 세계의 모습과 순수한 동심이 구현된 세계의 모습은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예술가의 삶과 대비를 이루어 한층 숭고하게 느껴진다. 작품의 말미에서는 소박한 행복조차 길게 누릴 수 없었던 이중섭의 삶에서 느껴지는 연민의 정서를 직유법과 도치법을 활용하여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제

이중섭의 삶과 이중섭이 꿈꾸던 세계를 떠올리며 느끼는 연민

구성

- ▶ 1~12행: 이중섭이 가족과 함께 살던 방의 모습
- ▶ 13~25행: 이중섭이 구현한 예술 세계의 모습
- ▶ 26~28행: 이중섭의 삶을 떠올리며 느끼는 연민



나희덕, 「설팀이 보이는 방-이중섭의 방에 와서」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 '광'의 원망. 세상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두는 창고방. 초가 귀퉁이 고방을 얻어서 살았던 이중섭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 '아고리'는 이중섭을, '발가락군'은 그의 일본인 아내 마사코를 가리키는 애칭

두 사람이 누우면 꼭 찰,

↳ 방이 아주 작음. '초가, 귀퉁이 고방, 두 사람이 누우면 꼭 찰' 등을 통해 이중섭과 그의 가족이 가난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 원관념은 '방'으로서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소재

게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 온 모래알이 버석거리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 가족의 단란한 모습

조개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

↳ 의인법

↳ 조개껍질테기의 원관념은 방, (직유법)

게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게를 그리는 아고리와

↳ 이중섭이 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 이중섭은 어려운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곤궁한 삶을 예술로 승화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군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 '관'과 더불어 이중섭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소재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 이중섭이 꿈꾸는 이상 ↳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

꿈속에서나 **그림속에서**

↳ 그림 중 특히 '서귀포의 환상'이라는 그림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 자유로운 이미지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 '풍요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중섭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 6.25 전쟁 중이라는 불안한 현실

설팀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 제주도 서귀포시에 딸린 작은 섬.

서러운 햇빛에 눈부서한 날 많았더라도

↳ 이중섭의 감정을 햇빛에 이입 (감정이입). 이중섭의 가난하고 힘든 현실에서 비롯된 표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 (가난해서 재료를 살 수 없어) 담뱃갑 속의 은박지에 그린 바다와 하늘. 이중섭의 미술기법과도 관련.

게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 질 때까지 놀았다

게가 아이의 잡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껍질에 세 든 **소라게처럼**

↳ 가난하면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던 이중섭의 모습이 잠시 스쳐가는 삶의 순간이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냄. 도치법

↳ 원관념은 이중섭과 그의 아내. 직유법

*아고리와 발가락군: 화가 이중섭과 그의 아내가 서로를 부르던 애칭.



작품의 특징

- 시인이 제주도 여행 중 서귀포에 있는 화가 이중섭이 살던 방에 와서 떠올린 생각을 시로 남김
- 시에 이중섭의 그림이 녹아 있어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
- 종결부에 도치법과 직유법을 사용해 불우했던 이중섭의 삶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남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중섭의 예술 세계를 묘사함.



김광균, 「광장」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주지적, 회화적
- 제재 : 광장
- 주제 : 도시 속에서 느끼는 개인의 고독과 불안

#EBS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를 대표하는 김광균의 시집 『와사등』에 실린 시로,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회화적인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대낮'에서 '황혼'으로의 시간 이동과 '비인 방'에서 '광장'으로의 공간 이동이 시상 전개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청동 비둘기', '고층', '가동' 등과 같은 도시의 정물들이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내면을 드러내 준다. 또한 '네거리'의 '광장'에 선 화자의 모습은 도시에서 군중 속 개인이 겪는 불안과 방향 상실감을 환기하고 있다.

주제

도시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독과 불안

구성

- ▶ 1연: 대낮에 빈방에 홀로 있는 화자의 모습
- ▶ 2~3연: 일몰 무렵 도시의 삭막한 풍경
- ▶ 4연: 화자의 내면에 깃드는 고독감
- ▶ 5연: 도시 공간 속에 놓인 화자의 불안감



김광균, 「광장」

비인 방에 호을로

↳ 고독감의 정서 ↳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봄

대낮에 체경(體鏡)을 대하여 앉다. → 비인 방에 있는 화자가 고독감 속에서 취한 행동

↳ 몸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거울 → 자기 성찰의 상징적 도구

슬픈 도시(都市)엔 **일몰(日沒)이 오고**

↳ 대낮에서 저녁으로 시간적 배경이 전환됨. 쓸쓸함과 불안함 속에 맞는 황혼(하강적 이미지)

시계점(時計店) 지붕 위에 **청동(靑銅) 비둘기**

↳ 날 수 없는 존재(비생명성)으로 쓸쓸함과 고독감을 심화시킴.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 청동 비둘기 조각상을 스치는 바람 소리(감정 이입)

늘어선 **고층(高層) 위에 서격이는 갈대밭**

↳ 도회, 문명의 모습 ↳ 고독하게 흔들리는 내면(청각적 이미지)

열없는 표목(標木) 되어 조으는 가등(街燈)

↳ '조는'의 시적 허용 ↳ 기운이 없이 움츠러든 화자의 심정

소리도 없이 **모색(暮色)에 젖어**

↳ 날이 저물어 가는 어스레한 빛으로 해질 무렵의 풍경을 묘사

얽은 베틀에 바람이 차다.

↳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회로 나선 화자의 차갑고 쓸쓸한 심경(촉각적 심상)

마음 한구석에 **별레가 운다.**

↳ 공허하고 서글픈 내면의 감정 이입(청각적 이미지)

황혼을 좇아 **네거리(街)에 달음질치다.** → 네거리, 광장에 있는 화자가 고독감 속에서 취한 행동

↳ 비인 방에서 네거리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됨

모자도 없이 광장(廣場)에 서다.

↳ 화자의 고독감과 불안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

↳ 모자도 없이(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낯선 공간(도회지의 광장)에서 느끼는 불안함



작품의 특징

-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제시
- '대낮 → 황혼', '비인 방 → 광장'의 시간적·공간적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
- 어둡고 차가운 도회지의 풍경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줌
-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을 정물(청동 비둘기)과 자연물(별레)에 이입시켜 드러냄



김광균, 「대장간의 유혹」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비판적, 성찰적, 비유적
- 제재 : 대장간
- 주제 :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과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EBS

해제

이 작품은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 시이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 한꺼번에 싸게 사서 / 마구 쓰다가 /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 플라스틱 물건'은 현대 도시 문명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사물로, 현대인들의 삶이 지니는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 단련을 거쳐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개성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낸다. '시퍼런 무쇠 낮'과 '꼬부랑 호미'는 삶의 가치를 회복한 화자의 모습을 표상하는 소재들이며, 시의 제목인 '대장간의 유혹'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하기를 바라는 욕망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과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구성

- ▶ 1~6행: 획일적이고 소모적인 삶에 대한 거부
- ▶ 7~9행: 현재는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에 가고자 하는 바람
- ▶ 10~14행: 가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
- ▶ 15~18행: 개성적인 존재로 대우받고자 하는 소망
- ▶ 19~25행: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과 변화에 대한 소망



김광균, 「대장간의 유혹」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 대량 생산 체제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속성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 도시인들의 소모적인 삶의 상징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 삶의 과정, 가던 길

↳ '플라스틱 물건' 과 같은 비인간화 된 삶의 거부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도시 문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대상 (←털보네 대장간)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 화자가 그리워하는 공간. 상업화로 인해 사라짐 (←현대아파트)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의 하나.

모루 위에서 버리고

↳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숫들에 갈아 → 단련을 통해 변모해가는 것. 개성과 정체성이 존재함

시퍼런 무쇠 낮으로 바꾸고 싶다

↳ 획일화 되지 않은 개성적인 존재.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 1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 플라스틱 물건과 대비되는 '하나씩 만들어 낸' 개성적인 가치를 지닌 '꼬부랑 호미'

꼬부랑 호미가 되어

↳ 획일화 되지 않은 개성적인 존재.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 2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 자신의 고유한 가치(정체성)를 찾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 도시에서의 삶을 반성

직지사 해우소

↳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으로, 정에서 '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도시적 삶을 비유(=플라스틱 물건)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진정한 삶을 회복하고자 함



작품의 특징

- 유사한 통사 구조(~처럼 느껴질 때, ~싶다)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강한 소망을 드러냄.
- 공간의 이원적 대립 구조 (현대아파트↔대장간)와 이미지의 대립(상실↔회복)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 하고 있다.
- 행위를 통해 관념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와 '무쇠 낮, 호미' 등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